

소식지발간 인사말 2면 | 현장활동 3~4면 | 회의활동 5면 | 지부소식 6면 | 상급단체소식 7면 | 조직소개 8면



제4대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출범식 개최

제4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이 4월 26일(금) 경북교육청 별관 대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우 교육감,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 최우섭 교육의원, 추재천 교육위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조진호 위원장,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오성택 위원장, 광역자치단

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윤주용 위원장, 전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류영록 위원장, 대구경북공공협의회 7개단체 위원장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30여명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및 내빈들과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출범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모든 갈등과 직렬 이기주의를 넘어 경북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중앙단위노조에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배운 경험들을 밑거름 삼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경북교육노조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투명한 회계처리는 물론이고 노조간부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조를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를 전국제일의 최단일노조라는 위상에 걸맞은 노조다운 노조로 바꿔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경북교육노조는 단체교섭실시, 행정실직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활동, 직렬대표자 간담회 실시, 노조간부에 대한 노사교육을 통하여 조합원 권익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북교육노조 4대 추진사업

학교행정실 근무환경개선

- 행정실 확대 개편(학사 및 재정팀) 및 정원 추가
- 모든 학교 행정실장 6급 이상 배치
- 시 지역 교육지원청 과장 복수직급(4, 5급) 및 선임담당 복수직급(5, 6급)
- 학교공사 지역청에서 시공(기술직 추가 배치)
- 학교행정의 각종 통계 및 보고 최소화

조합원복지사업

- 동아리 가입 보장 및 활동지원비 확대 지원
- 가정의 날 준수
- 경북교육상 교직원 포함
- 6급 이하 공로연수 실시

인사제도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일반직 불이익 배제
- 소수 직렬 승진 및 정원 확대
- 기능직공무원 승진 확대 지속추진
- 업무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분장 및 인사교류 확대
- 6, 7급 승진 적체 해소
- 일반직 퇴직시 사무관 이상 보장, 기능직 6급 보장

공무원노총 및 교육청노조(중앙) 연대사업

- 학교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개선
- 승진시 호봉삭감 폐지 및 5, 6급 호봉 상한제 폐지
- 대학진학 자녀 학자금 지원 촉구
- 성과상여금 및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 공무원직종개편 완성 (공무원임용령 개정시 적극 참여)
- 지방교육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바로잡기
- 부교육감 임용방법 개선 및 중앙부처의 지시 통제 관행 개선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 김종기입니다. 우리 경북교육노조는 지난 2004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을 위해 노조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활동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무사안일과 현실만족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10여년을 중앙단위노조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정부수립최초의 단체협약을 비롯해 6급이하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년평등화, 직종개편, 연금법개정, 초중등교육법개정, 상위직급 확대, 근속승진 확대 등 공무원 근무환경 변화의 현장에 함께 있었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경험들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경북교육노조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노조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우선으로 노조간부라는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노조를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반드시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가 전국제일의 최대 단일노조로서 위상에 걸 맞는 노조다운 노조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통제와 지지만 있고 도움이라고는 주지 않으면서 누리기만 하려는 중앙정부와 의회, 그리고 비정규직, 교원노조로부터 닥쳐오는 거센 외풍을 든든히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노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다고 이념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의 노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 협력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

위원장 김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동지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공무원노조법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지만 이는 순간의 불편함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희생과 동참은 후배공무원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정착시켜 묵묵히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노동조합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고생하신 경북교육청 김광곤 초대 직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전임 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相生의 노사 문화 창출을 기대하며

은 산야에 성장의 푸른 기운이 활기찬 계절에 제4대 경북교육노조 조합원을 대변한 신문인 '자명종'을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 경북교육노조가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중심으로 하위급 공무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눈과 귀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 열정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에게도 모범 사례를 전파하는 선도적인 노동조합으로 발전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북교육노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향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은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

경상북도교육감 이영우

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급변 노조 신문 '자명종'의 창간이 경북교육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相生의 노사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경북교육노조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조의 '홍보 대변자' 역할 기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재형



조합원들의 인간다운 삶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교육노조의 소식지 '자명종'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오늘 창간이 있기까지 애써 오신 김종기 위원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하 임원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경북교육노조가 출범한 때에 조

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체부 역할을 하게 될 소식지의 발간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자명종'이 경북교육노조의 각종 소식은 물론 올바른 노사문화와 노동운동 방향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대변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명종이 제 역할을 할 때 경북교육노조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명종의 작은 한 걸음이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행정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밝고 깨끗한 민주 교육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저 역시 자명종의 더 큰 역할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명종' 창간을 축하드리며, '자명종'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경북교육노조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5월 21일(화) 14시 경북교육연수원에서 경북교육청소속 각급 학교 행정실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행정실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교육노조 4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리인 동시에 앞으로 제정 예정인 학교 행정실의 법제화에 앞선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은 경북교육청 행정지원과 김인숙 사무관의 사회로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관의 이상돈 서기관이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위학교 경영시스템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지난 5월 13일 예비토론회를 거쳐 선정된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의 정승표, 강상우(구미육성초), 강소영(경산삼성현 중), 최정임(경주황량초), 김장훈(포항곡강초) 등 5명의 패널들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교육부 이상돈 서기관은 발제에 앞서 "오늘 교육행정직원들을 위한 토론회가 경북을 넘어 전국에서

“학교행정실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처음 개최한다는것과, 공무원노사관계의 방향 설정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소외를 밝혔으며 학교행정실 직원들과 교원과 함께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학교행정실 직원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교행정실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간의 유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학교행정실의 직급을 동일하게(정승표), 교원과의 업무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업무기준 제시(최정임), 행정실업무 기능 강화와 수당 신설(강상우), 창조경영을 통한 다락(多樂) 학교 만들기(강소영), 교장의 업무 분산(김장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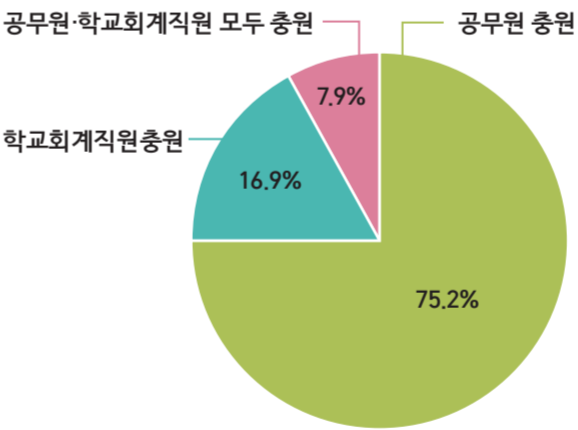
토론회에 참석한 문영규 기획관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후배공무원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교육행정공무원들을 위한 토론회 자리가 처음인 만큼 좋

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기 위원장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함께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학교행정에 대한 정책 입안에서는 소외되고 무시되었다"면서 "이제부터는 당당한 정책 대안 제시로 스스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예정했던 400명을 훨씬 넘는 등록인원 511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문영규 기획관리국장, 김일동 행정지원과장, 석종서 사무관, 박소을 주무관, 교육연수원 김성희 부장 등 시군교육지원청의 과장 및 담당계장들과 경북교육노조의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박흥기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과 임원 및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대부분 학교 행정실 직원 충원 원해”

6.10~7.5 행정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행정실 근무자들 대부분이 행정실 직원 충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노조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경북교육감 소속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총 912명중 75.22%인 686명이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4명이 52.23%(48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명 이하인 곳도 22.63%(208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행정실의 근무인원 수가 '보통'이라는 답변이 30.24%를 차지했지만 '조금 적다'와 '매우 적다'를 포함해

적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8.5%(635명)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1인당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행정실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분장이 명확히 나뉘져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9%(598명)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행정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40시간 이상 50시간이 전체 응답자 중 77.7%(70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행정실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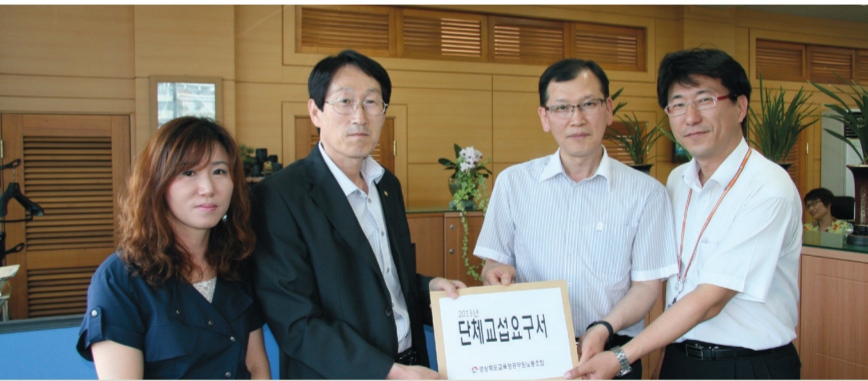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행정실 근무여건과 관련해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교원과 행정실직원간에 동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 "행정실장장의 법적책임은 많지만 권한이 적다" "1인 행정실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과중한 업무에 교육행정적으로

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번 설문결과를 행정실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단체교섭을 통하여 각급 학교 행정실 근무자와 관련된 정책사항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설문조사 상세결과 4페이지



2013 단체교섭요구

경북교육노조는 5월 24일 「2013년도 경북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경북교육노조가 제출한 2013년도 단체교섭요구안은 전문과 본문 63개조문, 부칙을 포함한 전체 118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교섭요구안으로는 조합 활동보장,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의 적정배분과 상위직급 확대, 행정실 등 근무환경 개선, 예산의 적정배분과 맞춤형복지비의 인상 등 조합원 복지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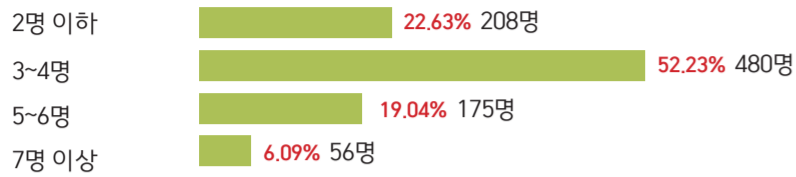
단체교섭안을 제출한 박흥기 수석부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근무환경이 많이 변했으므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요구사항 이외에 교섭중이라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겠다"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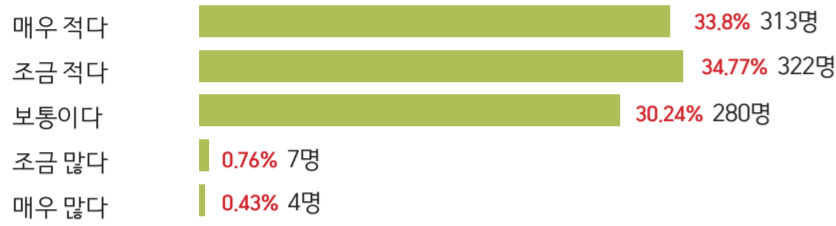
경북교육노조는 향후 직렬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조합원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설문조사 상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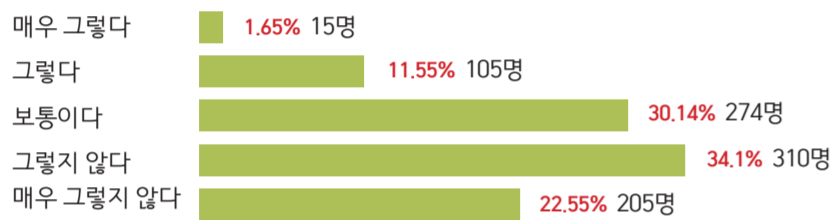
▶ 현재 근무하는 행정실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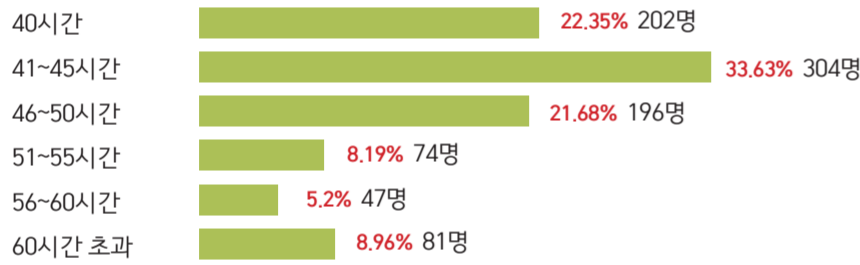
▶ 현재 근무하는 행정실의 인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현재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행정실에 근무하는 주중 실제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4대 집행부 간부 워크숍 실시

경북교육노조 제4대 위원장을 비롯한 제4대 집행부는 6월 1일(토) 팔공산 유스호스텔 세미나실에서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오전 10시부터 김종기 위원장의 한국노동운동사를 시작으로 공

무원노조 간부의 역할, 공무원노조 현황 등 오후 4시까지 공무원노조 전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4대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향과 노조 간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소수직렬 공무원 간담회

경북교육노조 제4대 집행부는 지방공무원 중 소수직렬(전산, 사서, 보건, 조리, 시설, 공업, 기계 운전 등)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임기시작인 4월 15일(월)부

터 6월 30일(일)까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결과는 직렬별로 정리하여 교섭 의제로 요구하거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쌀기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4월 30일(화) 오후 교육감실에서 쌀 500kg을 이영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쌀 500kg은 경북교육노조가 제4대 출범식 거행시 축하 화환대신 쌀 화환으로 받은 것.

김종기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우리농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겹치레용 행사가 아니라 출범의 진정성을 알리고, 노조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돕게 됐다”고 쌀기증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노조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눔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소식지 공개모집결과

○ 응모기간 : 1차 : 2013. 5. 15~5. 25(10일간), 2차 : 2013. 6.5~6.14(9일간)

○ 선정결과

-최우수상 : 황명근(구미금오초등학교, 자명종)

-우수상 : 전종업(상대초등학교, 여울목)

-장려상

소속	성명	제호
본청 공보담당관실	박흥기	동행
감천초등학교	김정래	희망 경북
본청 행정지원과	윤숙자	에코(메아리)
본청 교원지원과	손병관	우레, 쇠도, Beyond 갯밭이
군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최정연	장검다리
형일초등학교	김현중	e파발
군위고등학교	장헌	慶北教育勞組 希望紙
정평초등학교	장은석	뻘어가는 경북 실천하는 경북
다산중학교	이인모	달팽이 소식지
옥대초등학교	이선희	희망(교육)행정, 등불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박선희	So. 1
산북중학교	이학대	토대

○ 시상방법 : 개별 통보

○ 선정방법 : 경북교육노조 상임집행위원회의 제6월2차 회의(2013. 6. 25)에서 선정.



제49차 상임위원회의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7월 2일(화) 16시부터 노조회의실에서 제49차 정기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제25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대의원 하계 워크숍 개최안 △노조차량 임대안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단체교섭요구안 심의 및 단체교섭 특별위원회구성안 △2013년도 세입세출 제2차 추경안 △회계감사위원 비준안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선출안 등 7개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규약 개정과 추경안 승인을 위한 제25차 임시대의원대회는 경북학생해양수련원(영덕)에서 하계수련회와 병행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무처 운영규정, 노조 회계규정, 특별위원회 설치규정, 노조 업무용차량 운영규정, 전임자규정 등 각종 규정을 제·개정하였으며, 지부운영비를 조합원1인당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단체교섭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교섭 지원을 위해서 자료수집,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제4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두달이 조금 지난 지금, 그동안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소수직렬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행정실 업무경감을 위한 설문조사에 지역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노조를 방문한 경상북도교육청 이성희 부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노조와 집행부 모두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공통의 목적이 있으니 항상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합리적인 노조 활동과 원칙을 지키는 강한노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합리적인 노조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체상임위원 28명중 25명이 참석하였다.



제48차 상임위원회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 제48차 상임위원회가 4월 17일(수) 경상북도의

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4대 경북교육노조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북교육노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고생한 상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며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경북교육노조 사업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4대 출범식 개최(안) △제24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안) △기타 협의안으로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노동교육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대의원대회 및 하계 수련회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7.12(금)부터 13(토)까지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서 24개 시·군 지부대의원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25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하계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수련회에서 첫 시간은 김종기 위원장이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강신기 인사담당사무관이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규정」을, 마지막 시간에는 석종서 단체담당사무관이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강신기 인사담당사무관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무평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절대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모두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공무원노조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한 석종서 단체담당사무관은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잘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권익개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제2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안) △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안)이 상정 되었다. 2013년도 제2차 추경 안은 지난 4월에 출범한 제4대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필요한 단체교섭 경비 등 예산 확보와 지부운영비를 조합원1인당 500원씩 인상하는 안이 원안 통과되었다.

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 안은 사무처의 각 국 명칭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 각국별 명칭을 삭제하는 대신 사무처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의 공무원노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10년후의 공무원노조를 상상해 보면 공무원노조는 반드시 발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참견해준 대의원들께 감사하고 오늘의 어려움이 공무원노조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과, 조합원 50명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개최지인 영덕군의 김병목 군수님이 참석하여 “대개와 송이, 그리고 고래볼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영덕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였으며, 방중수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박진현 도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대의원들을 격려했다.





울진지부 제4대 집행부 출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 울진지부(지부장, 남성춘) 제4대 지부 출범식이 6월 24일(월) 개최되었다.

울진지부장에는 지난 5월 27일 제3대 지부 집행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남성춘 지부장이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남성춘 지부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조합원동지들께 감사드리며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움이 앞선다"면서 "지부발전을 위해서 투명한 회계 처리는 물론, 조합원들의 권익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본조와 긴

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조합원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조 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기 위원장은 "울진지부 제4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동안 울진지부를 이끌어온 우종광 지부장님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표하며,

또한 신임 남성춘 지부장의 취임을 축하함을 전달하는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조 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울진지부 조합원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본조에서는 김종기 위원장, 박흥기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함께 하였다.

고령지부 간부 워크숍 실시



경북교육노조 고령지부(지부장 이준재)는 6월 7일(금) ~ 8일(토) 2일간 경남 남해군 일원에서 고령지부 임원 및 대의원 20명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노사 합동 직무연수는 '우리도 교육의 주체이다'라는 큰 주제 아래 행정지원과장 장병태 사무관의 "건강"이란 주제의 특강 및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종기 위원장의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형상"이란 주제로 노사관계 연수,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청렴연수)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관계, 학교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교직원 업무경감, 웃음이 대화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직무연수에 참석한 고령지부 임원 및 대의원들은 "울바른 노사관계 정립 및 청렴한 공직자상을 익히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청렴과 소통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도지부 제4대 출범식 열려



경북교육노조 청도지부(지부장 이철태) 제4대 지부 출범식이 7월 30일(화) 청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4기 청도지부장은 행정지원과의 이철태 전 사무국장이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이날 취임인사를 통해서 경북교육노조의 제4대 집행부 슬로건인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부 발전 및 조합원들의 권익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본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조합원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기 위원장은 "청

도지부 초대지부장 출신으로 감회가 새롭다"면서 "그동안 청도지부를 이끌어온 이은미 지부장님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표하며 신임 이철태 지부장과 이우민 사무국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또 "지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곧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조기에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본조에서도 조합원들의 권익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함께 참석한 청도교육지원청 김윤옥 관리과장이 축사를 통해서 "경북교육노조 청도지부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총·안전행정부 합동워크숍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은 5월 2일(목) 아산 도교BS투어엔리조트에서 공무원노총·안전행정부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총과 안전행정부 간의 소통강화 및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16개 특별위원회 사업

계획 설명회, 최재용 인사정책과 과장의 공무원인사제도 설명회에 이어 최승혜 한국 웃음치료교육협회 대표의 '편(Fun)경영리더십&웃음 건강법'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2일차인 권의사항 수립 및 설문 시간에는 이연철 수석부위원장의 직종통합 진행사항을 보고했다.



안행부 장관과 간담회 가져

공무원노총 주요현안 논의

공무원노총은 5월 22일(수)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과 공무원노총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 △노·사 상시협의체 구성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요구(6급 급속승진) △시간외



공무원노총 통합 1주년 행사 개최

공무원노총은 6월 20일(목) 공무원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총 통합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02년 3월 16일 정부의 탄압 속에서 대한민국 최초 공무원노조의 총연맹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탄생했으며, 2004년 전국국민노동조합총연맹과 통합하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탄생시켰다.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012년 6월 20일 광역연맹과 교육청노조가 통합하여 설립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대통합을 이루어 현재의 대한민국공무원노

동조합총연맹을 설립했으며, 전국 공무원을 대표하고 조합원 권익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박성철 前 위원장, 정의용 前 위원장, 김종기 前 위원장과 전국에서 찾아온 연맹 및 단위노조 위원장, 안행부 공무원노사협력관 김혜순 국장 외 1명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통합 1주년 기념식, 공무원노총 역사 및 2013년 활동상황 보고, 지도위원 위촉장 수여, 공무원노총 향후 투쟁방향 모색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부 장관 간담회 실시

보전수당 지급 관련 해결방안 모색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5월 21일(금)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방공무원의 보전수당지급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교육부 서남수 장관은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정원 배정을 통한 업무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과 협의하여 공무원노총에 해결방안을 통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사항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본 공무원노총은 각 직종별로 오래된 법과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많아 업무와 직렬이 불일치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며, 직종통합하기 전 이런 부분을 사전 정리할 수 있도록 현장 기관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업무가중에 의한 조합원(학교 행정실 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등)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속한 인력 총원 및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유정복 장관은 "각 현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검토를 거쳐 공무원노총에 통보하겠다"며, 또한 "상시 노사협의체를 통해 공무원노총의 실질적인 현안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관련 의견서 김성태 의원에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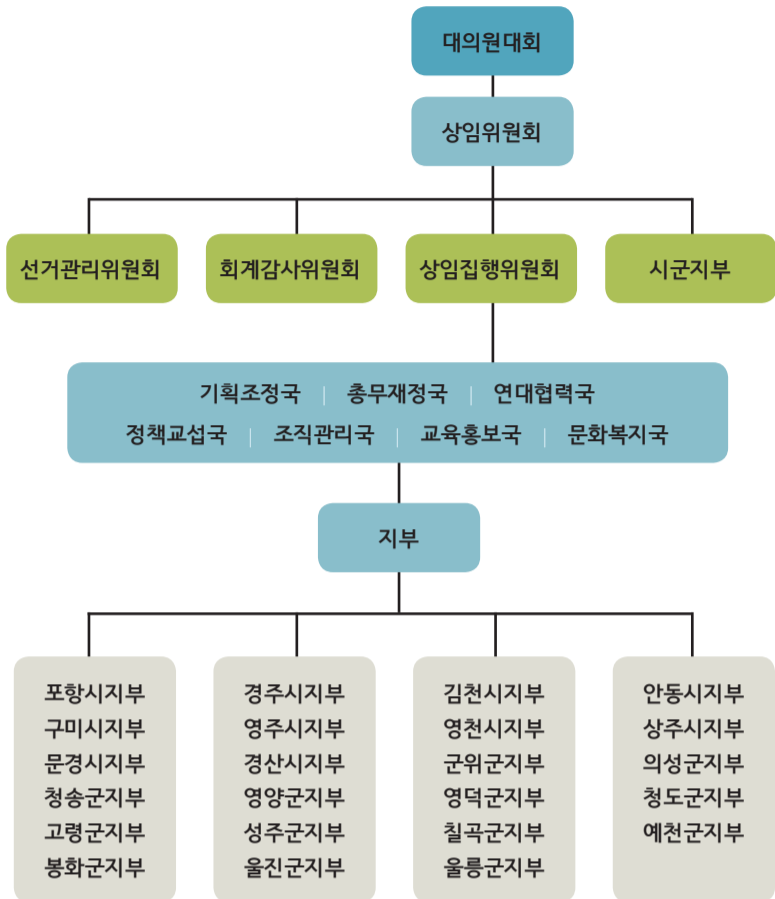
공무원노총은 6월 24일(월)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에게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의견서 주요내용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관련한 것으로 △6급에서 5급 이하로 가임범위 확대 △협약대상 노사자율 결정 △타임오프제 도입 △단체협약 불이행시 벌칙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진호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의 유급 전임활동을 보장하여 조합원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노동조합 발전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공무원노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며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하여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북교육노조 조직도



경북교육노조 집행부



위원장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박흥기
경북교육청 공보담당관실



부위원장 김명수
칠곡교육지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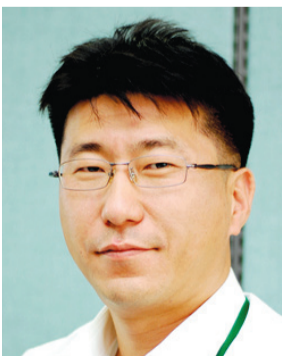
부위원장 조영현
칠곡교육지원청



부위원장 전미경
경북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



부위원장 안승완
경북교육청 교육시설과



사무총장 정원상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



회계감사위원장 김종웅
김천교육지원청

지부장 인사말



경북교육노조 “자명종”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경북교육노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자명종”의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침을 일깨우는 자명종 소리처럼 경북교육노조의 희망찬 소식이 곳곳에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경북교육노조 “자명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합원의 눈, 귀를 열어주는 소식지 창간은 새로운 임원진의 변화와 개혁을 반영하는 좋은 계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북노조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자명종 발간은 우리노동조합의 역사와 함께 조합원 속에 들어와 조합원들의 정보교류와 피부에 닿는 새로운 소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자명종”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정책과 현장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경북교육노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의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정책과 현장에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소식지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식지 자명종 창간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조합원동지들의 애환과 고달픔이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자명종처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무더운 여름날 한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늘 가까이 하기를...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자명종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많은 정감어린 소식들을 주저리 주저리 담아 조합원들의 알 권리 제공에 한 축이 되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모든 이에게 한가득 울려 퍼져 경북교육노조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위태롭게 되고, 의지가 부족하면 나태하게 되고, 분별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며 감정이 부족하여 뒤흔어진 생활속에 안일한 삶에 치우치고 노동조합에 의욕이 생겨나질 않으니 더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여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조적 노동문화 창출을 선도하고, 새로움을 알리는 자명종처럼 더욱 발전하는 경북교육노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3개시군 중 제출자만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